이베로아메리카 제6권(2004년)

브라질의 카니발: 축제의 미학에 관한 연구

이 광 윤*

<Abstracto>

O carnaval ou a festa é, antigamente, sinônimo de alegria, o trabalho é eufemismo de castigo, dureza, suor, segundo a análise classáca antropôlogica. Como outros casos, para brasileiros, o carnaval é uma ocasião em que a vida diária deixa de ser operativa e,por causa disso, um momento extraordinária é inventado. Esse extra-ordinário quebra a rotina e os seus imperativos voltados exclusivamente para a produtividade. É o momento em que se dá a alternância do trabalho para a festa; é o instante em que se dá a ruptura do que é previsível e racional, colocando em suspensão as rotinas produtivas.

Roberto da Matta, um dos mais antropólogos que procuram dar conta da complexidade de uma cultura brasileira multifacetada, responde que o carnaval é basicamente uma inversão do mundo ou uma catástrofe. Só que uma reviravolta positiva, esperada, planificada e, por tudo isso, vista como desejada e necessária no mundo brasileiro social. Nele, conforme sabemos, trocamos a noite pelo dia; ou, o que é ainda mais inverossímil; fazemos uma noite em pleno dia, substituindo os movimentos da rotina diária pela dança e pelas harmonias dos movimentos coletivos que desfilam num conjunto ritmado, como uma coletividade indestrutível e corporificada na música e no canto. No carnaval, o corpo também paga um tributo ao cansaço, mas é uma

* 부산외대 포르투갈어과

exaustão decorrente do prazer e da alegria. A fantasia, entendida no sentido de algo que se pode pensar acordado, descontrói o sentido de hierarquia imposto pelo uniforme.

Nesse sentido, o carnaval do Brasil significa inversão, movimento numa sociedade que tem horror à mobilidade, exibição numa ordem social marcada pelo falso recato de 'quem conhece o seu lugar' e feminino num universo social e cosmológico marcado pelos homens. Por todos esses atributos, o carnaval é a possibilidade utópica de mudar de lugar, de trocar de posição na estrutura social. De realmente inverter o mundo em direção à alegria, à abundância, à liberdade e sobretudo, à igualdade de todos perante a sociedade.

Key Words: Estética de Festa / Carnaval do Brasil / Identidade do Carnaval Dislocação da Casa e da Rua / Simbolização do Carnaval

주제어: 축제의 미학 / 브라질 카니발 / 카니발의 정체성 / 집과 거리의 환치 / 카니발의 상징화

Ⅰ. 들어가는 말

인간은 축제를 통해서 삶의 일회적 방향성을 전체로 확산시켜 삶의 지평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린다. 이러한 축제의 기능은 축(祝)과 제(祭)가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형식이라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즉 축제는 인간의 유희본능과 우주에 대한 경외감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공동체의 행위이다. 따라서 축제 속에는 이미 종교적 제의가 스며들어 있으며, 종교적 제의 또는 의례는[1] 축제의 형

1) 대체로 제의(祭儀)는 조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하여 신에게 희생을 바치어 동일성

식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또한 축제 속에는 모든 예술 형태가 망라되어 있다. 축제는 모든 예술이 미분화된 상태로 엮어져 있는 종합예술의 성격을 지닌다.

제의적 성격과 유희적 성격이 어우러지면서 오랜 동안 지속된 축제는 역사성을 띠게 되고, 이러한 역사성은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2] 따라서 공동체 의식은 축제가 갖는 독립성으로 작동함으로써 자신을 방어하는 방패이자 성곽의 구실을 한다. 방패와 성곽은 이방인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해 주는 대신에 때로는 자신을 자유롭지 못하게 가두기 때문이다. 인류학을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는 '생활방식'이란 의미의 문화 정체성 개념은 문화에서 내적-외적으로 작용하는 권력관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온 것처럼, 문화 정체성은 스스로를 방어한다는 소극적 차원을 뛰어넘어 타자와의 소통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기능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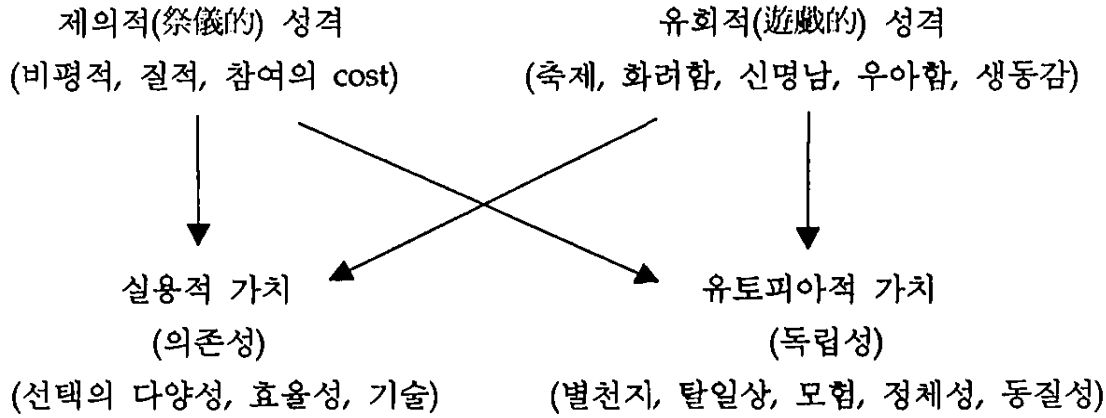
그러나 또한 축제는 그것이 본래 가지고 있는 유희적이고 제의적 성격으로 인해, 주체의 배타적 독립성만을 고집하지 않고 타자를 향한 소통의 다리를 놓는다. 축제는 변경(邊境)의 논리이며 장(場)의 논리이다. 변경과 장의 논리로 이루어지는 축제는 문화 정

을 회복하려는 신앙관념의 표현양식이고, 의례(儀禮)는 우리의 '차례'와도 상통하는 말로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요구되는 순리 그 자체의 의식화된 행동양식으로 제의를 포함해서 그 행위의 저변에 깔려있는 관념까지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2) 공동체의 관점에서 축제를 바라본 에밀 뒤르껭(Émile Durkheim)은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축제는 공동체의 communion(神人交流)이다"라고 규정하면서 축제는 communion을 통한 집단의 재통합 혹은 집단동일화라고 언급하고 여기서 말하는 communion은 신이란 공동체의 집합력이며 공동체는 신에 대한 숭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집단 속에서 자기 정체성의 확인이거나 communion을 통한 집단의 재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것 같은 장치를 가진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뒤르껭, 1992, pp.25-32)을 참조.

체성의 독립성과 의존성의 이분법적 틀을 넘어서서 상호의존의 관계망을 형성한다. 축제는 주체성과 타자성의 완충지역이다. 다시 말해, 축제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개별성이 총체성을 꿈꾸고, 차별성이 통일성을 지향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러한 문화적 코드로서의 축제를, 동일한 의미범주, 하나의 동일한 구조를 구성하는 변별자질들이 유지하는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Greimas의 기호사각형을 응용하여 그 가치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축제의 가치체계>



이런 맥락에서 축제는 문화 정체성의 핵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삼바 카니발로 대표되는 브라질에서의 축제는 "사회적 갈등과 긴장을 흡수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유희적이고 제의적이며 예술적인 창조의 마당"이라고 말할 수 있다(Lima 2003) 또한 바흐친이 "카니발은 무대도 연기자와 관객의 구분도 없는 스펙타클이다. 그곳에서 카니발적인 삶을 향유하는데 이 삶이야말로 정상궤도를 이탈한 삶이며 어떤 면에서는 뒤집힌 삶이며 뒤집힌 세계인 것이다."라고(바흐친 2001, 45) 말했듯이 브라질 카니발 축제는 분명 하나의 전복적 행위이며 일정의 일탈행위를

유도한다.

본 연구에서는 브라질의 카니발 축제를 하나의 텍스트로 삼아 그 의미와 성격을 축제의 일반적인 모습과 관련 지워 살펴보고 그를 통해 카니발의 정체성을 설정하며 이와 함께 카니발의 미학적 차별성이 카니발의 정체성과 어떻게 관련 지워지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축제, 그 언어 읽기

1. 축제의 모습

우리는 적어도 놀이와 잔치, 축제의 자리를 통하여 평소의 우리로부터 빠져 나와 평소에 되고 싶었던 또 다른 우리로 둔갑하고자 한다. 일상의 울적함과 억눌린 감정을 토해 내고 평소에는 마음 속 깊이 감추어 두었던 본능적인 충동을 풀어놓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잔치와 축제를 통해서 진정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데 축제의 진정성은 바로 이러한 점에 있다.

하지만 잔치가 보여주는 자의 일방적인 기획에 따라서 차려진 범위 내에서 즐기는 것이라면, 축제는 보여주는 자나 보는 자의 구분 없이 활발한 소통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유쾌한 상대성'과 그것이 발생시키는 창조적 무질서를 즐긴다는 점에서 과정 중심적인 역동적인 행사인 것이다. 과정 중심적인 역동적인 행사는 생산자의 텍스트 생산만으로 완결되는 것은 아니다. 향유자의 적극적인 텍스트 참여 과정을 통해 다양한 양상의 텍스트로 끊임없이 다시 씌어짐으로써 텍스트는 지속적인 개방성을 확보하기 때문이

다. 이 과정에서 이어성(異語性)과 다어성(多語性)의 소란스러움은 다성적(多聲的)인 양상으로 드러나며, 다성성의 흥성스러움이 텍스트 향유의 즐거움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축제는 구성적 축제가 되어야 하며, 그 자체가 새로운 전체성을 구현, 지속, 확충해나감으로써 그 역동성과 활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만듦의 과정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축제와 잔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잔치와 축제의 비교>

잔치	축제
일방적	대화적
정태적	역동적
읽는 텍스트	쓰는 텍스트
관람중심적	참여중심적
단성적(單聲的)	다성적(多聲的)
결정적(決定적)	구성적(構成的)
생산자 중심	향유자 중심

축제는 이성을 배척해도 되는 유일한 자리이다. 일상 속의 자신을 규제하는 모든 속박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이성에서 자유롭게 풀려나 분위기와 흐름에 마음껏 몸을 맡길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축제는 어차피 정하여진 시간 내에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이성을 벗어 던질 수 있는 것이다.

축제는 일상에서 스며나온 끼나 흥, 공동체적인 소통의 욕구가 출발이 되며, 일상의 지위나 룰에서 미끄러지듯 일탈하면서 가장

축제다운 모습을 띄게 된다. 평평한 마당에서 상석도 하석도 없이 '이렇게 놀아야한다' 는 약속된 이미지에 맞추어 실컷 놀고 즐기는 것이 축제이고 사회의 억압에서 가장 멀리 있으면서 자유와 개성을 향유하는 순간이 바로 축제의 정점인데, 이는 축제가 일상의 지위나 룰보다 개인의 개성과 자아가 빛나는 장소여야 하기 때문이다.[3)]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바흐친이 말한 축제, 곧 카니발의 의미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바흐친은, "카니발이 공식적인 잔치에 반대하면서 기존 질서에 대한 진리로부터 일시적인 해방을 구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바흐친 2001,48-55). 축제 안에서 모든 사회적 위계, 특권, 규범, 금기 사항은 무너지고, 축제야말로 진정한 시간의 잔치이며 변화와 재생의 잔치이다. 그것은 완벽하고 불변적인 것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진다. 모든 것이 뒤섞인 과장과 풍요의 세상이고 뒤죽박죽이며 에너지가 넘치는 카니발은 일시적인 전복의 기운이 들끓고 불경스러운 것들로 넘쳐난다. 그러나 공식 문화의 실제적 영역에서 규범적 행위가 특정한 결과를 생성함에 비해, 축제의 저항 의식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적절한 실천의 영역에서 아무런 효과를 남기지 않는다. 즉, 축제에서는 환상(phantasma)이 실제(pragma)를 대체하는 것이다(Matta 1978, 58-68).

확실히 축제는 우리에게 있어 또 다른 세상으로 향하는 문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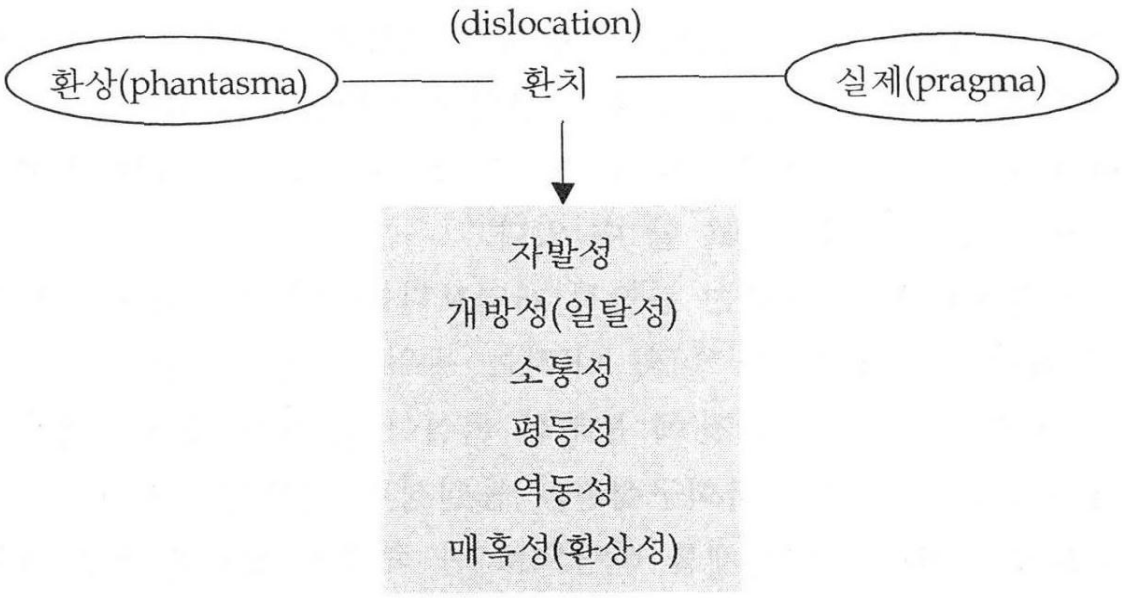
3) 이러한 점은, 축제가 갖고 있는 원래의 4가지 가치, 즉 실용적 가치(축제 본연의 가치로 1차적인 가치)와 유토피아적 가치(축제로 인해 별천지에서 탈일상이나 이문화의 체험을 경험하며 몰입하면서 느끼는 삶의 재발견, 모험 등의 상징적 가치), 그리고 비평적 가치(축제의 질과 그의 참여에 따르는 cost의 가치)와 유희적 가치(말 그대로 즐긴다는 가치로 욕망하는 가치)가 유기적 관계를 갖고 균형 있게 어우러지는 잔치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다른 세상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마법의 수정이요, 요술램프 같은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알프레드 시몽이 "축제는 참가자들에게 신비스러운 기원과 우주적 운명이라는 의식을 동시에 부여하는 황홀경이라는 특성을 요구"(시몽 1999, 161-171) 하는 것이라고 말한 지적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물론 축제는 황홀경에 빠질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황홀경이라는 특성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곧 축제는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는 다른 생각도 포용하는 다양성의 바탕 위에 평소와 다른 특별한 시간과 공간을 즐기는 것이다.

또한 하비 콕스는 "축제는 억압되고 간과되었던 감정표현이 사회적으로 허용된 기회"라고 보고, 그 기회는 고의적(故意的) 과잉성과 축의적(祝儀的) 긍정성, 그리고 대국성(對局性) 이라는 세 가지의 본질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축제(祝祭)와 제축(祭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두 용어를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면서도 축제(festival)는 제축(festivity)과 환상(fantasy)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콕스 1992,44). 여기서 고의적 과잉성이란 제축적 행위가 부어라, 마셔라 하며 환락을 추구하는 행위의 의미를 뜻하고, 축의적 긍정성이란 제축은 언제나 기본적으로 '생을 긍정한다'는 자세를 필요로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대국성이란 축제는 일상생활과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시몽 1999, 231-233).

이러한 점에서 축제의 미학을 그 기능과 관련지워 보면 다음과 같이 도해할 수 있다.

<축제 언어(축제 미학)>



2. 축제의 의의 및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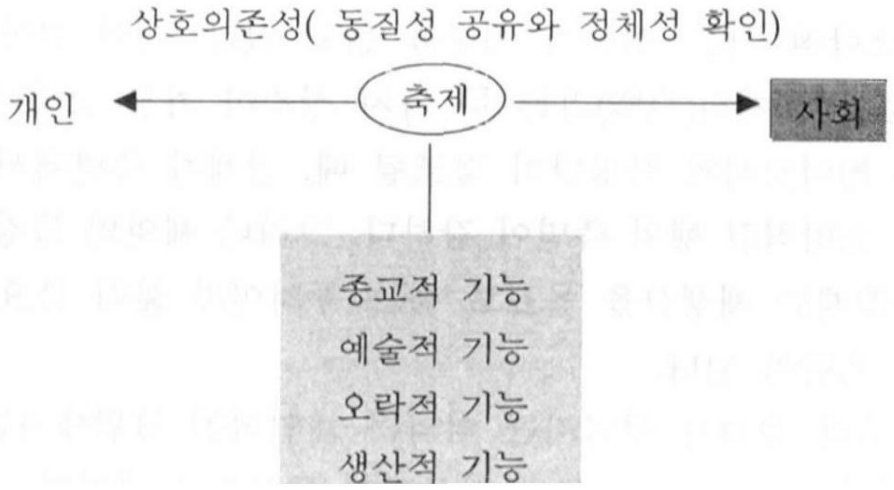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축제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은 종교적 기능, 예술적 기능, 오락적 기능, 생산적 기능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이 축제는 유희(遊戱)와 제의(祭儀)라는 두 가지 성격이 가장 강하다. 이 때 축제가 놀이로서의 특징만이 강조될 때,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은 소비적인 행위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제의의 특징이 가미될 때 축제는 재생산을 목표로 하는 투자이자 삶의 풍요를 위한 문화적 기반이 된다.

공동체와 축제가 맺어지는 의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질 높은 정신적 삶에 대한 추구를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지만, 사회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는 사회 구성원간의 동질성 공유를 그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해 축제는 질 높은 정신적 삶에 대한 만족감 외에도

사회 동질성을 확립시킨다(뒤르껭 1992, 34-38). 이러한 동질성은 구성원 각자의 정체성(identity)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이는 사회나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확립시켜 구성원 각자에게 공동체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준다. 구성원의 자부심이 강할수록 그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을 뜻하고, 이럴 때 사회나 국가라는 존재의 가치가 보다 강해진다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가 '우리'라는 통합적 개념보다는 '나'라는 해체적 개념이 강하고 나아가서는 '너와 나'라는 동위적 개념이기보다는 '나'는 나일뿐 그 외는 '그것'에 불과한 현실이다. 이런 사회적 맥락에서 자아를 회복하고 사회구성원의 동질성과 정체성을 확보하려면 문화적 기제로서 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축제의 활용이 매우 훌륭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축제의 기능과 축제를 통한 동질성 공유와 정체성 확인이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는 다음의 표로 요약될 수 있다.



바흐친이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축제를 통하여 술과 음식과 돈을 '과도하게 소비'하고, '금기를 위반'하고, '폭력적 광기'에 몸을 맡길 수도 있다. 바흐친은 말한다. "축제는 세계를 향한 특별한 마음가짐이다. 그것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된 세계를 지향하며, 세계와 개인을, 개인과 다른 인간들을 변화의 기쁨과 흥겨운 상호의존성으로 밀착시켜 모두를 해방된 친밀의 영역에서 하나가 되게 한다. 축제는 두려움이 잉태한 교조적이고 진화/변화에 적대적이며 생존의 주어진 조건과 사회질서를 적대화하는, 일반적이고 공식적인 음울한 진지함에 저항한다. 축제적 태도는 바로 이러한 진지함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킨다. 그러나 축제에는 허무주의 그리고 얄팍한 천박함이나 볼 데 없이 속된 보헤미안풍의 개인주의는 조금도 없다"고 그는 주장한다(바흐친 2001, 62-67).

또한 장 뒤비뇨가 그의 책 『축제와 문명』에서 "아무 규제 없는 공간에서 아주 잠깐 동안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 인간에겐 축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말에 공감할 필요가 있다(뒤비뇨 1998, 48). 왜냐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금기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공식적인 장소와 시간으로서, 축제는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축제는 허가된 과도함이며, 질서정연한 과도함이다. 그것은 금기에 대한 공식적인 위반행위이다.'(시몽 1999, 232) 라는 말에서도 우리는 축제가 일상에서 출발해 일탈에서 정점을 맞는다는 명제를 실감할 수 있다. 바로, '어떻게 인간적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물음 앞에서 음악과 춤, 시, 영화 등의 다양한 예술 장르가 축제를 웅장한 폭발의 시간과 장소를 만든다는 사실이 그 일탈성에 대한 해답으로 제공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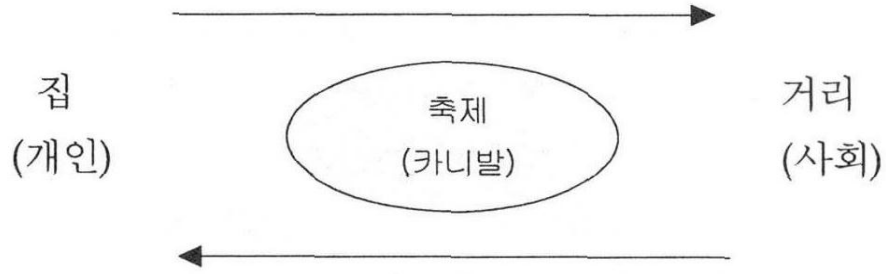
그렇다. 축제적 태도는 바로 흥겨운(혹은 유쾌한) 상호의존성과 일탈성을 생성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축제의 본질이니까 말이다. 그것은 소통의 몸짓이고 존재의 비밀에 도달하고자 하는 원초적인 본능을 일깨우는 건강한 것이다. 일탈은 분명 우리를 잠시 일상의 질곡으로부터 잊게 해주며 우리의 문화를 풍요롭게 하고 사회를 보다 진보하게 하기 위한 긍정적인 전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축제에서 문화나 예술, 정치적, 종교적 목적은 잊어도 좋다.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축제, 우리는 이제 그런 축제가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Ⅲ. 브라질 카니발

1. '거리'와 '집'

인간의 삶은 개체와 집단이라는 양극을 지속적으로 왕래하고 있다. 즉 실존적 개인으로서의 삶은 공동의 집단적 삶을 재확인하고, 다시 그 반대에 있어 집단적 삶은 개인적 삶을 되돌아보게 한다. 축제라는 잔치의 마당은 바로 이러한 재확인과 되돌아보게 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Schwartzman 1979/9/14). 이러한 점과 관련 지워, 우리는 브라질의 카니발이 보여주는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 확보를 브라질 사회를 이해하는 실마리로 '거리'(rua)와 '집'(casa)이라는 양극 개념을 대별, 이해함으로써 찾을 수 있다. 또한 브라질 사회를 흔히 카니발의 사회라고 말하는데 그러한 카니발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 거리와 집이라는 대립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Matta 1978, 85-87).

<카니발의 정체성(이중적 비유)>



일반적으로 '거리'라는 분류개념을 예측할 수 없는 사건, 행동 및 정열의 세계라고 본다면, '집'이라는 분류개념은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여 있는 통제된 우주이다. 거리 개념에는 움직임과 새로움 그리고 꿈이 함의되어 있다면, 집은 조화와 따뜻함 그리고 조용함이 그 특징인 것이다. 또 거리는 일하는 곳이라면, 집은 쉬는 곳이다. 따라서 집에서 살고 있는 사회집단은 거리의 세계에 있는 사회집단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친족과 혈연으로 결속되어 있어 상하의 서열이 정해져 있고 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거리에는 후견인의 관계로 상하 서열이 불분명하고 선택의 폭이 열려 있다. 그래서 거리에는 언제나 남을 속이고 이용하는 것이 관례이다. 이렇듯 집의 영역이 친숙하고 사회관계의 통제가 존속되는 곳이라면 거리는 통제가 없고 남남의 관계로 격리되어 있는 곳이다.

브라질의 카니발은 원래 집안에서 가족이나 이웃이 중심이 된 잔치였다. 이러한 집(casa)에서의 카니발이 거리의 카니발로 발전된 것은 150년 전으로, 카니발이 벌어지는 공간, 즉 거리, 골목, 광장, 클럽 등의 모든 공간은 특수한 공간으로 설정되며 다양한 규

모의 카니발 집단의 지역으로 변하게 된다. 모든 거리는 집안처럼 사적인 성격을 띠게 되며 도심의 비인간적인 성격은 인간적이고 공동체적인 분위기로 바뀌며 창조적인 상황 - 계급과 사회적인 배경이 일체 고려되지 않는 - 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는 거리 자체가 집으로 환치[4]되는 셈으로 거리의 모든 사람들은 카니발 기간 동안 행복과 웃음과 음악 그리고 성적 쾌락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모두가 하나가 된다.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저 사람들 또는 대중으로 불리며 직업과 계급, 배경 등을 떠나 우리는 다 같이 하나이고, 우리는 모두 브라질 사람이라는 것만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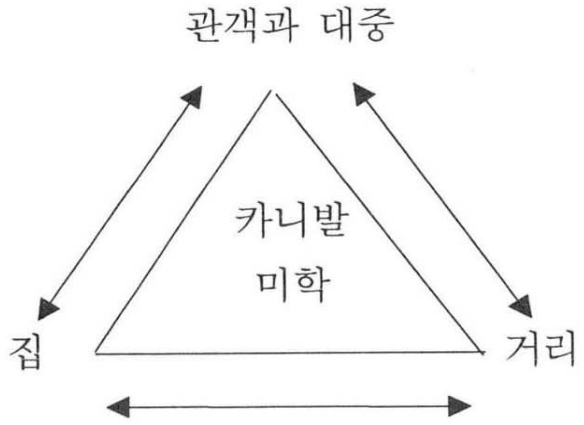
카니발 때의 거리는 일종의 극장 무대로 바뀌며 그 무대는 줄거리가 정해져 있지 않다. 연기자와 관객이 서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고 즉흥적인 구성이 많다. 이 경우 누가 연기자이고 누가 관객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여자로 분장하고 나오는 것이 남자인 경우가 많은데, 이 때 남성들은 한편으로 정숙한 여인으로 분장하기도 하고 또 거리의 동성연애자로 분장하기도 한다. 전자는 바로 집의 세계를 나타내 보이고, 후자는 거리의 세계를 상징한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남장을 하고 남성들을 성적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서로의 전통적인 역할을 저버리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거리에서나 집에서 브라질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

4) 각각의 영역이 갖고 있는 사회적 역할과 이데올로기 및 행동, 모종의 가치와 대상물이 원래의 영역에서 벗어나 다른 영역으로 옮겨지는 것으로 단순한 대상이 상징으로 전환되는 상징과 관련지을 때 대상이 상징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환치의 메커니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카니발은 이중적 비유를 통해서 집과 거리의 개념을 상호 연결시키며 카니발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대표하게 된다.

간에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어떤 고정된 규칙에 얽매여 있다. 브라질의 사회질서는 개인들을 분해하고 해체해 버리는 것 같다. 그래서 한 개인의 의지와 규범이 요구하는 행동 간에 갈등이 빚어지게 되면 브라질 사람들은 적당히 회피하고 적당히 해석해 버린다.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기보다는 법과 규범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카니발의 경우는 특별한 공간이 설정되는 것으로 곧 집과 거리를 벗어나거나 초월하여 일상적인 사회세계 밖에 축제를 벌이는 것이다. 그 안에서는 개인이 어느 누구에게 구속되는 어떠한 고정된 규칙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바로 축제는, 카니발은 일상적 삶을 일시적으로나마 환치시킴으로써 일상적인 삶의 이해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놓게 되는 것이다(Lima 2003).

<카니발의 미학>



2. 카니발의 상징과 정체성

인구의 90% 이상이 가톨릭을 종교로 갖고 있는 브라질인들은 언제나 모든 것을 하느님께 의지하고 구하며, 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다. 그래서인지 "Graças a Deus!"라는 말을 인사말이나 대화에서 너무나도 빈번히 쓰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분명, 정열과 광란, 환락, 그리고 익살과 풍자의 모습으로 점철되어지는 카니발은 어쩌면 하느님의 섭리에 어긋나는지도 모르는 일인데, 어찌 브라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고 시험받은 수난의 사순절에 앞서 3일 아니 일주일 동안 질펀하게 카니발의 축제를 즐기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카니발이 끝난 후 교회에 나가 더 많은 고백과 회개를 통하여 더욱 새롭고 충실한 신앙인으로 태어나 단식과 속죄, 그리고 정진의 사순절을 더욱 뜻깊게 보내려는 나름대로의 의미부여가 있기 때문이라면 너무 지나친 억측일까?

게다가 시간과 정력, 돈의 낭비가 적지 않고 또한 과거 브라질이 고질적인 인플레와 외채에 시달리던 시절에는 더욱 그러하였지만 최근 신자유주의 시대의 산물인 빈부의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빈곤과 기아로 죽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카니발은 여전히 필요한가라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브라질의 많은 지식인들 중에는 카니발이 망국병의 원인이라고 한탄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은 카니발이 브라질인들에게 가져다주는 민족적이고 사회·심리적인 효과를 고려해 보건대 한낱 무의미한 것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브라질인들에게 있어 카니발은 진정 개

방성과 다양성, 역동성 등의 미학적인 패러다임이 설정된 공간이며 '구경하는 축제'(representation)가 아닌 참여하는 축제(participation)'를 경험할 수 있는 진정 국민적 축제요 문화적 시위임에 틀림없으며 이를 통하여 브라질 사람들은 "하나의 국가", "하나의 국민"임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Matta 1981,75).

여기서 우리는 브라질 카니발이라는 축제가 단순한 놀이와 경연의 장이 아니라, 확실히 개개인에게 원시성과 정체성을 찾는 체험을 통해 다시 건강하게 문명에 편입할 수 있게 하는 전통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카니발 축제가 공동체와의 자유롭고 평등한 소통을 통해 자아를 발달시키고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개인적인 체험으로 보다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카니발의 진정한 정체성과 그의 미학적 측면을 자발성과 개방성, 소통성, 평등성, 역동성 그리고 매혹성 또는 환상성으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Matta 1981, 83-97).

브라질 카니발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자발성과 개방성이다. 정부나 관(官)의 주도가 아닌 민간주도의 카니발 축제는 자발성에서 출발해 누구나, 무엇이나 작고 소박한 것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평등하고 열린 공간으로 나가 그 안에서 소통하고 어울리는 즉 대중적인 참여가 전제되는 축제임에 틀림없다. 그것은 동시대와 세대로 하여금 아니 그것을 초월하는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감동이며 그러한 감동의 울림으로부터 살아나는 예술성이 생산적인 예술의 주제이듯이, 카니발은 생산적인 양태를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는 또한 카니발 축제라는 시·공간(時·空間)을 통해 '나'와 '타인'과의 만남, 교차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얻어지는 서로 공유하는 자아, 즉 제 3의 공유적 자아가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나'와 '너'가 만나는 자리는 인간 실존의 공간이고, 예술과 문화 창조의 터이며 나아가 삶으로서의 세계에로 활짝 펼쳐진 지평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적인 참여가 전제된 그 열린 공간으로 누구라도 나아가 그 안에서 소통하고 어울리는 것이 결코 낯설지 않은 것이다. 축제의 행위가 일상적 현실을 뒤흔들고 그것과의 단절을 통해 하나의 현재 세계를 다시 창출함으로써, 바로 그 일상적 현실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는 힘과 기능을 지니는 것처럼, 이렇게 일상적 현실을 뒤흔들고 다시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현실의 모습을 바꾸려는 카니발 축제는 단순히 의미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 지시성으로 우리의 존재를 현실적 삶을 포함하여 이상적이고 새로운 삶의 세계로 접근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카니발 축제에 대한 브라질인과 외국인들의 폭발적인 열광은 무엇보다도 쌍방간의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의 자유로움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에 기인하고 있다. 앞서 말한 축제 참여의 보장은 단순한 참석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울리고 대화하고 호흡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므로 이러한 소통성의 극대화는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거의 모든 장소에서 펼쳐지는 행렬이 참여자에게만 국한된 공간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폭발적인 열광과 일체감을 주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 사이에 '대화가 제공되어지는 열린 마당'이 제공되어졌기 때문이다 (Cavalcanti 1995, 32-40). 축제를 누군가가 만들어놓은 판이 아니

라, 그 벌어진 놀이판에 끼어 들어 함께 놀며 즐기고 또는 직접 판을 벌이는 적극성을 통해 느끼는 감동을 배가해준 거은 이러한 쌍방의 소통이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펼쳐진다는 점에서 보다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는 또한 일반 대중과 행렬 참가자들간의 평등성을 확보해주는데 크게 일조하고 있다. 축제를 보기 위해 거리를 찾고 브라질이라는 열린 광장을 찾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 광장을 찾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서로의 즐거움을 공유하는 그런 경험은 분명 광장이라는 열린 공간이 높낮이가 없는 평등을 보장해주었기 때문이다.

브라질 카니발의 또 다른 특징은 역동적인 성격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규모와 질적, 그리고 역사적인 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카니발은 그 인지도나 지지도, 그리고 파급효과는 참으로 눈부시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카니발의 예술성과 그 다양성이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특히 삼바학교의 주제적인 측면에서) 이를 통하여 '카니발의 세계화'가 가능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 사람들은 과거의 역사와 혼혈의 다양성을 관통하여 축적된 에너지를 자신의 것으로 충분히 전화해 내어 그 빛을 발한 것처럼 자발성의 마인드에서 출발하여 '무엇보다도 놀 줄 아는 축제'를 만들려고 노력한 것이다.

또한 축제는 일상에서 스며나온 끼나 흥, 공동체적 소통욕구가 출발이 되며, 일상의 지위나 룰에서 미끄러지듯 일탈하면서 가장 축제다운 모습을 띤다. 브라질 카니발은 바로 평평한 마당에서 상석도 하석도 없이 '이렇게 놀아야 한다' 는 약속된 이미지에 맞추어 실컷 놀고 즐기며 환상성과 매혹성을 한없이 느끼고 있는데 이는 바로 카니발이 지향하는 새로운 세계 경험의 모습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브라질의 카니발은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의 실현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즉 브라질인에게 있어 카니발은 계급과 인종, 경제적 빈부의 차이를 뛰어넘는 완전한 평등주의와 민주주의의 실현의 장이다. 카니발을 통하여, 그리고 카니발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브라질 민중은 모두를 위하여 마련된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복장으로 허물없이 춤을 추며, 똑같이 즐기고, 똑같이 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바로 카니발은 밝음과 어두움, 비이성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 문명과 미개의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고 식민지 국가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이원주의로부터 벗어나 타인과의 평등을 구가할 수 있는 자리인 동시에 또한 오랜 세월 동안 전쟁의 경험을 겪지 않고 태평성대를 누려온 탓에 기인한 지나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극복하는데 가장 적절한 처방이기 때문에 "하나의 국가"와 "하나의 국민"으로의 통합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계기가 된다.

한편 브라질의 카니발은 '또 다른 시대에 존재할지 모르는 매력의 세계, 즉 환상의 세계'를 뜻하지 않게 발견하고, 그 세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카니발 기간동안에 지나간 고된 시간의 아픔과 짐으로부터 벗어나고, 인간사 쓰라린 삶을 잊어버리기 위해 흠뻑 마시고 취하며, 흥겹게 춤을 추고, 방탕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환락을 경험해 보기도 하며, 남자와 여자가 이성의 복장을 마음대로 바꿔 입어 보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가히 환상의 세계를 접해 보고자 한다.

Ⅳ. 맺음말 - 카니발의 정체성과 미학의 의미작용

지금까지 우리는 브라질 카니발을 텍스트로 삼아 축제의 모습과 그 정체성을 설정하고 이를 통하여 카니발의 미학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인 축제의 정체성이 그러하듯이 브라질의 카니발도 축제를 매개로 그리고 축제를 통해서 브라질 사람들이 세계를 인식하고자 하는 이미지와 담론을 구축하고 있다. 축제는 하나의 시청각적 텍스트로 읽히는 사회, 문화적 경험이며 동시에 미적 체험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카니발 축제를 통해서 카니발의 정체성과 미학은 어떤 의미작용을 일으키는가? 브라질 카니발이 추구하는 축제로서의 특성이 표층층위에서 나열되어 나타난 정체성과 심층층위에서 이러한 정체성의 근저를 이루는 '완전한 유기체적 형상을 가진' 그 무엇으로서의 '카니발의 미학'은 어떤 상관성을 지니고 있는 가에 대한 답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브라질 카니발의 정체성과 '카니발 미학'을 비교함으로써 이 두 개념의 상관성을 찾고자 한다. 아래 제시된 표는 브라질 카니발의 정체성과 '카니발의 미학'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카니발의 정체성과 '미학'의 상관관계>

카니발의 정체성	카니발의 미학	의미작용을 위한 해석
가톨릭 신앙 안에서의 일치 생산적 관계 수립	자발성	카니발 주체의 성향
참여자의 자유와 개성 강조 카타르시스의 충격	개방성(일탈성)	카니발의 위상
국민적 공감대 형성 개인, 사회의 동질성 확립	소통성	만남의 양태
주체성 확립 주체와 객체의 관계 설정 국민적 특질의 강조	평등성	카니발의 지향점(상징)
카니발 주제의 다양성 카니발의 예술성 카니발의 세계화	역동성	카니발 운영 및 프로그램
환상의 세계 경험 카니발의 다양성과 예술성 확보	매혹성(환상성)	카니발을 통한 대중의 새로운 세계 경험의 양태

참고문헌

김상일(1994), 카오스와 문명-문명의 위기와 카오스 여신의 부활, 동아출판.

미하일 바흐친 저, 이덕형, 최건영 옮김(2001), 프랑수아 라블레의 작품과 중세 및 르네상스의 민중문화, 대우학술총서.

알프레도 시몽 저, 박형섭 옮김(1999), 기호와 몽상, 동문선.

여홍상 외(1997), 바흐친의 대화주의, 문학과 지성사.

에밀 뒤르껭, 노치준, 민해숙 옮김(1992),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 민영사.

장 뒤비뇨 저, 류정아 옮김(1998), 축제와 문명, 한길사.

하비 콕스 저, 김천배 옮김(1992), 바보제, 현대사상사.

Cavalcanti, Maria V. de Castro(1995), A Arte do Carnaval: a Preparação e a Festa, Editora Funarte.

Lima, Paulo(2003) O Mundo de Ponta Cabeça, Balaio de Notícias, Edição 20, Aracaju, 2003/3/2.

Magalhães, Rosa(1997), Fazendo Carnaval, Nova Aguillar.

Matta, Roberto da(1978), Carnavais, Malandros e Heróis': Para uma Sociologia dos Problemas Brasileiros, RJ, Editora Zahar.

---------(1973), O Carnaval como rito Passagem, Editora Vozes.

---------Universo do Carnaval: Imagens e Reflexõoes, Editora Pinakotheke.

Schwartzman, Simon(1979), O Temporário e o Permanente, O Estado de São Paulo, 1979/9/14.

논문투고일자: 2004년 11월 10일